연루(連累)에서 연결을 거쳐 연대로, 공모(共謀)에서 공명(共鳴)을 거쳐 공생으로

이아리*

[서평] 조문영(2024), 『연루됨: 인류학자의 세상 읽기』,
글항아리, 388쪽

1. ‘빈곤’을 화두로 삼은 인류학자의 세상읽기

저자는 스스로의 삶과 학문적 탐구의 길에서 ‘빈곤’을 화두로 한 고민을 꾸준히 지속해 오고 있는 인류학자이다. 대학 학부 시절부터 서울 관악구 봉천동 철거 지역에서 공부방 교사로 3년간 활동한 경험이 있으며, 인근 난곡 지역의 빈곤과 복지의 관계를 주제로 석사 논문을 작성하여 큰 주목을 받았다. 이후 스탠퍼드대학교 인류학과에서 중국 동북 지역 노동자 계급의 빈곤화 과정을 분석한 논문으로 박사 학위를 받았으며, 이를 바탕으로 펴낸 첫 저서 *The Specter of “the People”: Urban Poverty in Northeast China*(Cornell University Press, 2013)는 2014년 미국 인류학회로부터 도시 인류학의 선도적 연구에 수여되는 앤서니 리즈상(Anthony Leeds Prize)을 수상하기도 했다.

최근까지도 ‘빈곤’과 ‘노동’, ‘청년’의 현실을 주제로 성실하게 논의를 확장해온 저자의 연구는 한국 사회에 이를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데 있어서도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2023년에는 『빈곤과정』과 『동자동, 당신이 살 권리』라는 두 권의 저서가 각각 제64회 한국출판문화상과 올해의 인권상을 수상하며 많은 이들의 주목을 받았다. 특히 후자는 저자가 연세대학교 문화

* 서울대학교 역사교육과 강사

인류학과에서 담당하는 <빈곤의 인류학> 수업을 수강한 제자들과 함께 꾸린 연구팀의 결과물로, 학문적 실천이 교육 현장에서의 실천으로도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2024년 말에 출간된 책 『연루됨: 인류학자의 세상 읽기』는 연구서들이었던 앞선 저술들과는 결을 조금 달리하는 책이다. 이 책은 저자가 다년간 신문에 연재한 칼럼들을 중심으로 짧은 호흡의 글들을 묶어 도톰해진 두께의 통찰들을 독자에게 건네어 온다. 한동안 유행하던 에세이집처럼 예쁜 표지와 빨려들 듯 읽히는 저자의 유려한 문장들은 책에 대한 진입 장벽을 훌쩍 낮추어 주지만, 그 안에 담긴 고민과 고찰들은 결코 가볍거나 성글지 않으며 그동안 저자가 걸어온 지난한 학술적 모색만큼의 무게감을 가지고 있다.

2. 코로나19가 열어놓은 일상의 틈새에서 공생 배당을 고민하기

책의 전체 체제는 모두 11부 64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각 부의 내용을 일별해 보면 다음과 같다.

1부에서 3부는 타자를 ‘감각’하고 ‘대면’하고 ‘관찰’하는 과정을 통해 현실 세계를 이해하는 첫걸음이 시작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코로나 팬데믹 시기의 ‘거리두기’가 타자 인식을 어떻게 협소하게 만들었는지에 대한 저자의 일화들은 인상 깊다. 특히 오랜 기간 중국을 연구해 온 저자 자신조차 팬데믹 기간 동안 편향된 미디어에 의해 ‘위협으로서의 중국’과 ‘기괴한 중국’ 양자만을 오가며 재현된 중국 이미지에 영향을 받았다고 고백한다. 결국 그러한 프레임 정치의 함정에서 빠져나오도록 도와준 것은 긴 세월 알고 지낸 중국에 있는 지인들과의 연결이었다. “현지조사를 하면서 만나는 평범한 중국인들은 중국을 ‘중국국가’, ‘중국 정부’와 곧바로 등치시키는 위협한 유혹에서 벗어나도록 도움을 준다. 내가 바라는 삶의 경관이 [...] 인간

이 서로에게, 다른 생명에게 자리를 내어주고 공생을 약속하는 세계였음을 다시 상기시켜준다.”(63)고 저자는 말한다.

책 제목과 닮은꼴인 4부 「연루되기」는 빈곤, 주거, 주민운동과 관련한 내용을 다루며, 독자들 다수가 일상의 풍경에서 무심히 지나쳐 왔을 한국 사회 이면의 치열한 장면들을 드러낸다.

가령 2009년 용산참사의 현장이었던 남일당 터에는 현재 43층짜리 빌딩이 세워져 “용리단길 부근의 랜드마크”로 불리고 있으며, 그 일대는 빈민곤 활동가들의 다크투어 행선지가 된 동시에 세간에는 부동산 투자자들의 입장 순례지로 더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 그런가 하면 서울 영등포구 동자동의 쪽방촌은 ‘영등포 공공주택사업 추진계획’이라는 정책적 혁신이 이루어지는 장이 되었지만, 쪽방촌 주민들의 주거권을 인정하면서 주거단지를 정비하려는 이 새로운 시도는 그간 임대료를 통해 수익을 챙겨온 소유주들의 거센 저항에 부딪히는 등 진척에 많은 난항을 겪고 있다. 결국 집단공모의 결과임이 분명한 부동산 시장의 원리가 많은 이들의 주거에 대한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도 모자라, 그간 꾸준하게 이어진 주민운동 및 빈민운동의 결실까지 방해하고 있는 것이다. 곧 저자는 용산과 동자동을 무대로 가난한 이들이 내 집을 가지지 못하고 쫓겨나는 역사를 반복하는 이 도시에서 우리 대부분이 “연루자이자 공모자”임을 일깨워 준다.

5부 「삶-노동하기」는 주로 한국과 중국의 청년들을 조명하며, 신자유주의적 재편 이후 물신숭배, 돈이 돈을 낳는다는 자본주의 주술에 대한 과신, 자기 결정권이 박탈당한 채 스마트폰 공장에서 부품처럼 일하고 있는 젊은 노동자들에 대해 이야기한다. 저자는 이러한 현실에서도 폭넓은 연대 가능성과 공생의 윤리를 모색하며, 특히 ‘기본소득’ 담론 속에서 새로운 분배의 정치를 주목한다.

6부 「정치하기」에는 한국과 중국의 정치 상황을 바라보며 떠올리는 단상들이, 7부 「돌보기」는 노년의 삶이 처한 위기와 더불어 돌봄 노동을 지탱해 온 혈연 가족의 의미, 노인 돌봄 및 지구 돌봄의 윤리 문제를 담고 있다.

8부 「자리하기」는 지역과 공동체의 이야기로서 한·중·일의 지역 사례를 각각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특히 귀촌 난민들을 위한 터전으로 유명한 일본 이토시마를 느슨한 공동체를 통한 새로운 ‘삶정치’의 시도가 이루어지는 대안적 사례로 자세히 살펴보고 있다. 9부 「공부하기」와 10부 「읽기」는 각각 교육자 및 학습자로서 대학에서의 경험과 독서를 통한 사유가 서술되고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1부 「지구-생활하기」에서 환경문제 및 기후위기와 관련한 논설들이 제시되며 책이 마무리된다.

이처럼 저자의 시선은 우리 사회의 주변부와 기저층, 그리고 독자들 대다수가 연루되어 있음에도 도외시해 왔던 공간들을 두루 훑어낸다. 연구 및 학술 현장에서 마주친 장면들에 더해 대학 교육자로서의 위치에서 맞닥뜨린 경험, 때로는 독서, 드라마, 영화를 통한 고찰들까지 다양한 소재가 언급되고 있지만 이러한 사유의 기반에 빈곤과 노동을 중심으로 한 저자의 기존 연구가 있음은 분명해 보인다.

그리고 빈곤 문제에 오래 천착해 온 저자의 지향은 공생 배당으로서의 ‘기본소득’을 향해 있다. 주로 5부 「삶-노동하기」에서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가 자세히 설명되고 있는데, 저자에 따르면 노동유연화 정책이 가속화된 2000년 이후 한국 사회에서도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에만 매몰되지 않고 새로운 가능성을 찾으려고 하는 시도가 이어져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가 부상하였다. 그리고 이것이 기초노령연금이나 무상급식 등의 정책에 반영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저자가 지향하는 기본소득은 단순히 정책적 차원에 그치지 않고 더욱 근본적인 공생의 윤리를 위해 나아가는 길이다. 이 책에서 소개하고 있는 제임스 퍼거슨에 따르면 기본소득의 근거는 성원권이 아니라 현존(presence) 그 자체이며 “(토지에서 데이터까지) 지구의 공유부에 대해 모두가 요구할 수 있는 정당한 몫(167)”을 말한다. 거창한 인류애를 추구하는 문제가 아니라 나의 바로 옆에 있는 사람과 어떻게 공존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곧, 자신의 공간을 줄여 새로 들어오는 사람을 위한 자리를 꾸역꾸역 내주어

야 무사 귀환할 수 있는 남아프리카의 미니버스 택시처럼, 공동의 생존을 위해 짜증이 나더라도 타인에게 곁을 내어줄 수밖에 없는 의무를 이야기한다.

따라서 이러한 공생 배당으로서의 기본소득은 폭넓게 확장될 수 있다. 오늘날 남아프리카에서 성립한 사회 부조 체계에서는 안정적 임금노동에서 배제된 이들 다수를 40대이든 50대이든 청년으로 호명하며 사회적 지원을 제공하고 있고, 복지 급여의 기준으로 '규범적인' 혈연 가족을 고집하지 않고 아이를 가장 적극적으로 돌보는 사람이지만 심사하여 아동 지원 보조금을 지급한다(「물고기를 그냥 주어라」). 기본소득의 이름으로 공식 부문에 고용될 기회를 박탈당한 이들이 수행하는 주변적 노동, 아이와 노인에 대한 돌봄노동까지 지원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더 나아가 이러한 윤리가 인류 안에 한정되지 않고 지구의 비인간 존재들에게까지 그 몫을 할당하는 윤리로 확장되면서, 공생 배당은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환경 담론과도 연결되고 있다. 이것이 마지막 편인 11부 「지구-생활하기」에서 그려진다.

한편, 책에 실린 글들은 멀게는 2013년부터 쓰여진 10년간의 기록을 모았지만, 그 긴 시간들 가운데서도 코로나 팬데믹 국면의 상황이 단연 두드러지게 묘사되고 있다. 감염병의 위험과 그로 인한 희생을 방지한다는 명분으로 크고 작은 대면 연결을 모두 끊어버린 코로나 시국의 상황은 반복적인 일상이 멈춰서면서 잠깐 열린 어떤 틈새를 보게 한다.

우선 먼저 두드러지는 것은 이 시기의 부정적이고 파괴적인 영향이다. 앞에서 1부의 내용을 소개하며 이미 언급했듯이, 코로나 팬데믹은 사람과 국가를 막론하고 대상에 접근하는 길을 협소하게 만들면서 부정적 편견을 더욱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갔다. 또한 복지의 이름으로 주어졌던 사회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들, 후원의 손길들이 모두 끊기면서 쪽방촌 주민이나 무의탁 노인들의 생활은 더욱 어려워졌다. 주거 빈곤에 시달리는 이들에게 더욱 소중하였던 공적 공간의 시설들은 기약 없이 문을 닫았다. 저자가 책에서 줄곧 강조하는 마주침과 연결, 그리고 연대의 전통적인 형식은 이 시기

에 가장 무력해졌다.

그러나 다른 한편 코로나 팬데믹은 우리 사회에 다양한 성찰의 계기를 제공했다. 저자는 “코로나로 국가들이 빗장을 걸고 글로벌 이동이 감소하면서 중국과 국내의 대기 오염물질 배출량이 확연히 줄어들었다는 점만은 분명해 보였다. 어떤 인간 생명에게 비통함을 남긴 코로나 사태가 또 다른 비인간 생명의 숨통을 틔워줬다는 사실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371)를 묻기도 하고, “팬데믹 시기의 공론장이 요양원, 병원, 어린이집, 학교에서 (대부분 여성인) 돌봄 노동자가 수행하는 사회적 재생산에 주목하고 이들의 작업을 필수 노동으로 의제화한 것도 (남성가부장으로 의인화된) 생산 본위 자본주의에 대한 중요한 비판”(374)이었음을 인정하였다.

그런가 하면 국가를 막론하고 국제적 재난이자 위기상황으로 여겨졌던 코로나 팬데믹 시기에, 어떤 이들은 그 생애가 이미 생존경쟁에서 재난과 위기로 점철되어 코로나는 따로 재난으로 여겨지지도 않았다는 사실도 드러났다. 그래서 저자는 “나는 살면서 어떤 자본과 자원에 쉽게 가닿았기에, 쪽방 주민들보다 감염이나 기후변화에 덜 취약한 환경에 있으면서도 이를 위기로 예민하게 감지할 수 있었을까”(337)를 자문하고, 어떤 상황을 특별히 위기로 감지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애초에 누려온 ‘정상성’의 역사를 돌아보게 되었다.

이와 같이 저자는 팬데믹을 통해 드러난 이중적인 국면, 즉 연결이 단절된 고립의 시간과 동시에 새로운 질문이 열린 성찰의 시간에 주목한다. 사회적 지원과 공공 공간이 사라졌던 그 시기, 가난한 이들은 더욱 고립되었고, 연대의 형식은 무력해졌다. 그러나 동시에 팬데믹은 ‘정상성’이라는 특권이 누구에게 주어졌는지를 되묻게 하였고, 환경과 돌봄의 문제를 새로운 방식으로 드러냈다.

“나는 코로나19가 건디는 시간이 아니라 새롭게 질문하는 시간, 연결을 기다리는 시간이 아니라 어떤 연결이 지구를 좀더 공생에 적합한 환경으로 만들지 궁구하는 시간이 되길 바랐다.”(157)라는 저자의 문장은 전 지

구적 위기로 여겨진 코로나 팬데믹 시기를 거치며 더욱 구체화된 문제의식을 보여준다. 즉, 팬데믹은 단절의 시간이었지만 ‘어떻게 연결될 것인가’를 새로이 고민하게 만드는 시간이기도 하였던 것이다.

연루와 연결, 개입이 책 전체를 관통하는 화두임은 분명하다. 저자가 다룬 맥가비의 책 『가난 사파리』에서 ‘체제 및 구조라는 언어를 선호하면서 당장의 조치를 가설상의 혁명 이후로 미루고 있는 좌파들’에 대한 비판을 인용할 때도, 외부의 개입이 폭력적이라고 비판할 수 있을지언정 연결이 필요함을 부정하지 않는다. 도리어 ‘코로나 이후, 어떤 연결은 절실하다’고 강조하며 대안적 개입의 모색을 촉구한다(『가난 사파리』가 ‘가난 수용소’가 될 때).

책 『연루됨』은 그렇게, 일상의 균열을 직시하는 것에서 시작해 공생과 분배, 연대의 미래를 끈기 있게 탐색한 기록이자 성찰의 묶음이었다.

3. 생동하는 시간을 다루는 연구와 화석화된 시간을 다루는 연구

연구자들 사이에 인기가 높은 한 학술지 플랫폼의 웹툰에서, 인류학자들을 현장을 가리지 않고 뛰어드는 특수 요원처럼 표현했었다. ‘지금 여기’에 생동하는 시간을 연구 대상으로 삼아 중횡무진하며, 난곡과 동자동의 평상에서 직접 들은 내밀한 말들을 길어올리는 인류학자의 시선은 정말로 특수부대 요원의 그것을 연상케 했다. 책 전반에 걸쳐 일관되게 드러나는, 현재를 분석하고 감각하는 예민함은 결국 연구자가 지근거리에서 문제를, 사람을, 나아가 사회 전체를 직접 마주하기 때문에 가능했을 것이다.

이에 비해 주로 화석화된 시간을 다룬다고 할 역사 연구자로서는 이런 연구들을 보면, 과거의 시간을 오래 들여다보다가 도리어 현재를 바라보는 감각은 막연하고 무디어져 버린 것이 아닌가 고민이 들기도 한다. 나의 연구가 현재 사회에 부상하고 있는 논의들과 어떻게 쌍방향 소통을 할 수 있

을까 하는 고민에 대해서도 상대적으로 답을 찾기가 더 어렵다. 물론 모든 인류학 연구가 현대 사회의 문제만을 다루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알고 있지만, 이 책에서 그려지는 연구 방법론과 역사학에서 익숙한 방법론은 분명 차이가 있어 보인다.

특히 대부분의 역사 연구가 한 사회가 걸어온 종적인 맥락을 통해 특수성을 규명하고자 한다면, 이 책의 인류학적 시선은 보다 공시적인 변화를 탐구하며 동시대적인 보편성의 흐름을 추적한다. 한국 청년들의 이야기가 중국 청년들의 이야기와 교차하고, 서울 영등포구 동자동의 경험이 스코틀랜드 글래스고의 사례로 이어지는 등 순식간에 지구적 범위의 지역을 넘나들며 횡적인 연결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류학과 역사학은 부정할 수 없는 공통점을 공유한다. 각각의 개별 사례들과 직접 부딪친 후에야 연구 대상에 대해 논할 수 있으며, 학자의 주장도 바로 그 구체성에서 나온다는 점이 그것이다.

저자는 이러한 구체성과 주관성이 가지는 힘을 외면하지 않는다, 그래서 자신이 연구를 수행하거나 발표하는 학술 활동의 과정 중에, 혹은 대학의 교육 현장에서, 일상의 개인 간 교류 중에, 드라마나 영화와 같은 미디어를 보면서 마주친 값진 순간들—즉 찰나의 통찰을 제공하는 조우들—을 정성스레 모으고 갈무리하여 이 책을 통해 우리에게 제시하였다. 결코 짧은 호흡의 글 안에서 쉽게 결론을 내릴 수 없는 주제들도 폭넓게 망라하고, 때로는 제기한 화두를 끝까지 일관되게 끌고 가지 못한 채 글을 마무리하기도 한다. 그러나 찰나의 통찰이 갖든 일상의 편린 하나는 빠트리지 않고 전달하려는 태도는 순간의 마주침이 불러오는 공명의 울림을 전달하는 데 남다른 강점을 보인다.

그리고 역사 연구자 역시 지극히 구체적이고 단편적인 사료들 사이를 헤매야 하며, 그 과정에서 순간의 통찰이나 감상이 자극되는 마주침을 경험하곤 한다는 점에서 이와 같은 숙명을 나누고 있는지 모른다.

책은 ‘쪽방촌’이라는 사회의 주변부에 놓인 이들에게도 탁상행정의 시

야로는 포착되지 않는 연결과 연대의 끈이 있으며, 주민들이 스스로 최소한의 존엄을 지키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난곡의 빈곤한 주택가 속에서도 사람들은 관계를 맺을 수 있는 ‘평상’을 끊임없이 찾아 헤맸고, 동자동 쪽방촌에서 목격되는 상호부조적 연대는 고된 삶 속에서도 동료 인간에 대한 기대를 놓지 않으려는 절박함이 만들어낸 것이었다.

애플의 하청 공장인 폭스콘에서 청년 노동자들이 고립을 견디다 못해 집단 탈출을 감행했을 때, 인근 농촌의 가난한 주민들은 이들이 배라도 굶지 말기를 바라며 길거리에 음식을 놓아두는 방식으로 연대를 실천했다(158).

이러한 장면들은 20세기 전반기의 사료들을 헤매다 마주친 사회상들과 포개어지며, 오랜 기시감을 불러일으키는 것이었다. 필자 역시도 역사의 장을 살다 스러져 간 수많은 평범한 이들의 흔적 속에서 타자의 손을 절박하게 맞잡는 마음 같은 것이 가슴에 박힐 때가 있다.

예컨대, 일제 식민지기에는 수해나 가뭄과 같은 재해가 자주 발생했으며, 전국적 재해가 닥칠 때면 『동아일보』나 『조선일보』 등의 언론에서는 어김없이 의연금을 모금했다. 그런데 신문지면을 빼곡히 덮는 이름들 사이로 북해도, 화태, 장춘 등의 역외 지역에서 성금을 보내온 “월화”, “연향”, “춘매”와 같은 여성들의 이름이 보일 때가 많다. 머나먼 타지의 유곽에 팔려나간 것으로 짐작되는 여성들이다. 당시 빈궁한 가정 형편에 의해, 또는 인신매매적 사기로 인해 유흥접객업으로 내몰린 이 여성들은 오늘날의 성매매 시장이 그러하듯이 ‘전차금’이라는 명목의 선불금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며 그것이 그들을 속박하는 빛이 되어 끝내는 일본이나 만주와 같은 역외로 팔려나가는 경우가 많았다.¹ 이 여성들은 자신들을 지켜주지 못했던 조선의 동포들을 위해 어떤 심정으로 재해 의연금을 보내고 있는 것일까. 사

1 조선인 여성들이 인신매매에 의해 봉천, 하얼빈, 만주, 일본 등으로 넘어가는 경우는 1920년대 중반부터 본격화되었고, 만주의 유흥접객 시장이 커지던 1930년대 중후반에는 극단적으로 성행하였다. 이아리(2022), 「일제하 직업소개사업의 이원적 구조와 영리 소개업 통제에 한계」, 『민족문화연구』 제97호, pp. 389-397.

회와의 연결 및 연대의 끈을 놓지 않고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지키려는 의지가 비참한 처지의 이들이라고 해서 달랐을까.²

또한 1920년대 전반 조선인 하층 사회를 관찰한 일본인 후지이 주지로(藤井忠治郎)는, 생계가 막막해 아이를 버려야만 했던 부모들이 행여 아이가 발견되지 않을까 걱정되어 “복 들어간다”라고 소리친 뒤 대문 앞에 아이를 조심스럽게 내려놓고, 집 안에서 누군가 나와 아이를 데려가는 모습을 멀리서 숨죽이며 지켜보는 장면을 기록으로 남겼다. 그토록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애달픈 부모의 애정이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³

이처럼 구체성을 마주한다는 공통점은 각각의 연구가 종과 횡으로, 씨줄과 날줄처럼 엮임으로써 더 큰 그림을 완성하는 것도 가능하게 할 것이다.

책에서는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주지 말고 물고기를 그냥 주어라”라고 주장함으로써 기존에 익숙한 복지제도의 개념에 문제를 제기했던 제임스 퍼거슨의 논의를 가지고 와서, 전통적인 유럽형 복지국가의 형식은 대부분의 비서구인이 경험해 보지 않은 것이며 “정규직 임금노동자와 그 가족들’만을 대상으로 사회적 돌봄을 제도화했던 불완전한 구성물”로서, “안정적인 임금노동의 기회를 박탈당한 프레카리아트가 새로운 노동자의 전형으로 급부상한 시대에 조용하는 체제도 아니”(174)라고 지적하였다. 그 구체적인 증거는 남아프리카의 사례로서 뒷받침되고 있다.

그러나 돌이켜 보면 근대 마르크스주의 이후 ‘정형화된 노동’이라는 개념 자체가 역사적으로도 매우 제한적이었으며, 그 존속 또한 길지 않았다. 오히려 오늘날 새로운 노동자의 전형으로 부상한 ‘프레카리아트’(The Precariat)의 모습은 한국 근대화 초기의 역사 속에서도 낯설지 않은 장면이

2 장원아는 이러한 기부 행위를 사회적 낙인과 차별을 받았던 여성들이 사회와의 연결을 만들고 연대를 꾀하는 자기 존중의 행위로서 특별히 주목하였다. 장원아(2021), 「1920~30년대 성산업 종사자 여성의 중속적 현실과 대응」, 『사학연구』 제144호, pp. 468-472.

3 藤井忠治郎(1926), 『朝鮮無産階級の研究』, 東京帝國地方行政學會朝鮮本部, pp. 201-208.

다. 예컨대 여성들이 생애주기와 가구경제 전략에 따라 생산노동과 재생산 노동을 오가며 유동적이고 불분명한 형태의 노동을 수행했던 한편, 남성들 역시 농촌에서는 반농반노, 도시에서는 행랑아범이나 날품팔이와 같은 불안정하고 비공식적인 노동을 중심으로 살아갔다.

이처럼 근대적 노동의 전형이 가지는 허구성을 드러내고, 불안정 노동이 '정상 경로에서 이탈한 예외'가 아님을 일깨울 때, 그러한 역사적 통찰은 다양한 형태의 파편화된 노동으로 살아가는 이들의 삶을 포괄할 수 있는 사회부조 체제나 기본소득 제도에 대한 논의로 나아가는 데도 함께 기여할 수 있지 않을까.

4. '수사적 고향'은 안온하기만 한가?

책을 다 읽고 난 후 남은 여운은 필자를 다시 서문으로 되돌아가게 했다.

이 책은 '수사적 고향'이라는 개념으로 문을 연다. 철학자 뱅상 데콩브에 따르면, 수사적 고향이란 "그가 자기 활동과 행적에 부여하는 이유라든지 그가 표명하는 불만, 혹은 그가 표현하는 찬사를 대화 상대자들이 더 이상 이해하지 못하는 곳에서" 멈추는 지점이다(9). 저자는 명문대에 다니는 딸에게 지인의 축사를 대신 써달라고 부탁했던 아버지의 요청을 거절했던 기억을 떠올리며, 그러한 일이 반복되자 수사적 고향을 찾아 집을 떠났다고 회고한다. 그러나 인류학자로 살면서 세계 곳곳에서 수사적 고향이 다른 타자들, 아버지와 같은 이들을 마주해야 했다. 그리고 이제는 아버지도 다른 방식으로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나의 수사적 고향을 찾아, 그곳에서 통용되는 다른 언어를 갈고 닦으며, 멀고 먼 길을 돌아 다시 오니 부모의 삶이 가진 중층성이 보이는 것이 어디 저자만의 경험일까.

책은 이러한 '수사적 고향'이라는 개념을 통해, 저자가 가진 학술 언어라는 자본을 성찰하는 데서 출발하며, 각자의 빗장을 두른 수사적 고향에

서 안주하지 않겠다고 선언한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수사의 고향을 찾아나서는 여정 이후로, 모색하고 방랑하며 저자가 버리고 담금질 해온 인류학의 학술 언어는 이 세계에 함께 공존하고 있는 다채로운 삶/사람들과의 조우를 ‘두텁게 묘사하며’ 풀어내는 탁월한 도구가 되었다.

더욱이 연구자에게 수사적 고향은 결코 편안한 자리에 머무르는 것만을 뜻하지 않는다. 빈곤과 불안정 노동, 주변부를 탐구하는 학자의 ‘원죄’를 끌어안듯, 저자는 스스로의 위치를 끊임없이 성찰한다. 그는 “정규직 교수란 희귀종이 시대의 불안정성을 왈가왈부하는 위선을 벗어날 방도”(10)를 고민하며, 대학 부임 첫해에 학생으로부터 들은 “교수님은 정규직이라 부럽다”는 말을 오래도록 곱씹는다(166). 자본주의 그 자체를 비자본주의적 형식들이 얽힌 패치워크로 보는 새로운 논의를 소개하면서도(『송이버섯 냄새를 맡자. 그다음은?』), 그에 걸맞은 실천은 무엇이어야 하는지를 끊임없이 자문한다. 그리고는 “무엇보다, 불안정한 세계를 연구하는 정규직 교수의 위치성이 목구멍의 가시처럼 남는다”(355)고 고백한다.

이 책은 분명히 수사적 고향을 공유하는 독자들에게 더 쉽게 읽힐 것이다. 그러나 그들에게 안온한 자리를 허락하지는 않는다. 오히려 자본주의 세계의 연루자이자 공모자인 자신의 위치를 자각하게 하고, 그 불편함에 직면하게 하며, 연결을 통한 연대, 공감과 공명을 통한 공생의 가능성을 향해 나아가게 한다.

참고문헌

- 이아리(2022), 「일제하 직업소개사업의 이원적 구조와 영리 소개업 통제의 한계」, 『민족문화연구』 제97호.
- 장원아(2021), 「1920~30년대 성산업 종사자 여성의 종속적 현실과 대응」, 『사학연구』 제144호.
- 藤井忠治郎(1926), 『朝鮮無産階級の研究』, 東京帝國地方行政學會朝鮮本部.